

**T**  
**L**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PSDS) ..... 1

## I

##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이 보고서는 2018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유귀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회계사

우리나라는 2012회계연도부터 IMF의 국제통계작성기준(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이하, PSDS)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가 산출되고 있다.

2017회계연도의 공공부문 부채(D3)는 1,045조원(GDP 대비 60.4%)으로, 일반정부 부채(D2)는 735조원(GDP 대비 42.5%)으로 OECD 국가 중 부채수준은 양호한 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으로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증가속도는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국가채무(D1):** GFSM 1986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회계·기금의 현금주의 국가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됨
- **일반정부 부채(D2):**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로 국제기구(OECD) 제출 및 국제비교용으로 활용됨
- **공공부문 부채(D3):**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로 기존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됨

# 1 부채의 종류

2017회계연도의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sup>1)</sup>)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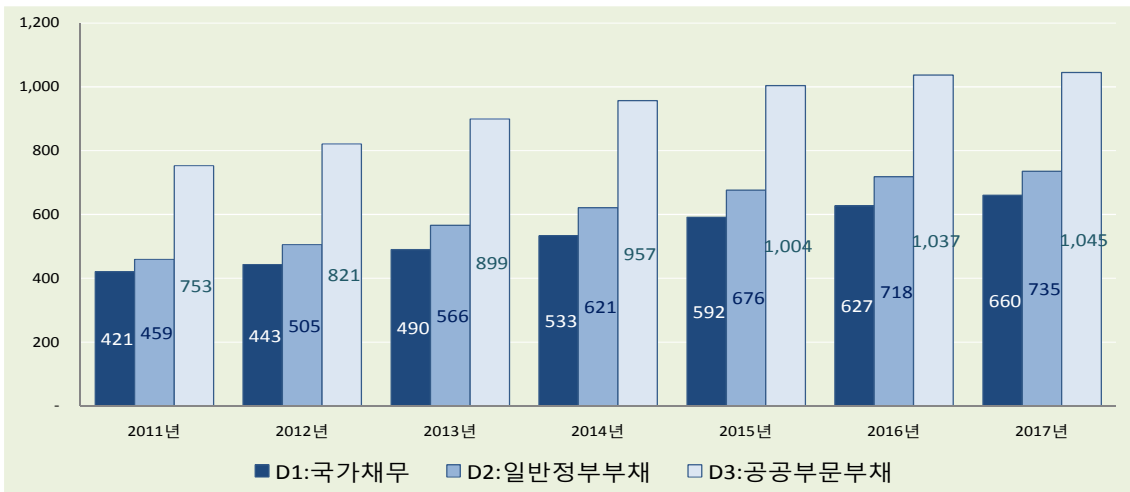
유형	2017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관리기준
국가채무 (D1)	660조원 (38.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735조원 (42.5%)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045조원 (60.4%)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1)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부채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7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1회계연도 459조원에서 2017회계연도 735조원으로 증가(연평균 46조원, 8.2%↑)하였고, D3는 753조원에서 1,045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49조원, 5.6%↑). 특히, D2의 경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위험관리가 요구됨

< 부채종류별 총부채의 7개년 추세 >

(단위: 조원)



## 2 D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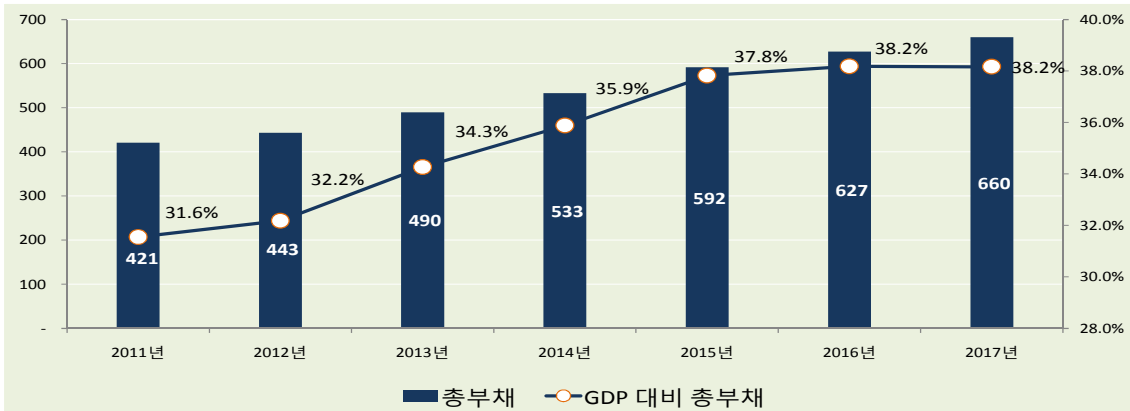
2017회계연도의 D1은 660조원으로 전년대비 33조원(5.3%)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8.3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12.0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29.8조원)에 주로 기인함. GDP 대비 비율은 38.2%로 2016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임

☞ D1의 증가속도\*는 2017회계연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자산 대비 D1의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2011회계연도 78.7%에서 2017회계연도 96.1%로 점차 증대되어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12년 23조원(GDP 대비 0.6%p) 증가, '13년 47조(2.1%p) 증가, '14년 43조(1.6%p) 증가, '15년 58조(1.9%p) 증가, '16년 35조(0.4%p) 증가, '17년 33조(0.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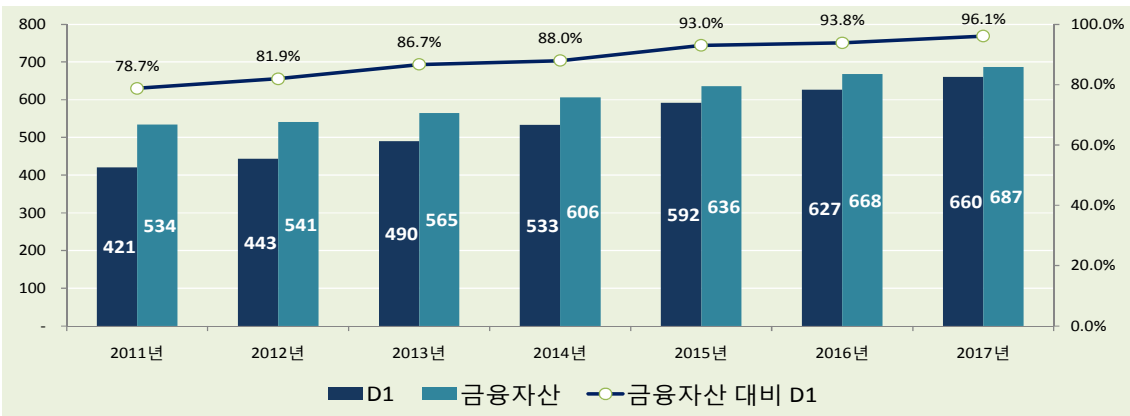
### <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GDP 대비 %)



### < 금융자산 대비 D1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



\* 금융자산은 PSDS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합산하여 산출

\*\* 금융자산 대비 D1(%) = (D1 / 금융자산) X 100

### 3 D2 분석

#### 1 증감분석

2017회계연도의 D2는 735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2.4%)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채는 증가했지만, 공채 감소(3조원), 예금보험공사 부채감소(3조원), 지방정부 부채감소(3조원)에 따라 증가폭이 일부 상쇄됨. GDP 대비 비율은 42.5%로 2011 회계연도 산출 이후 최초로 감소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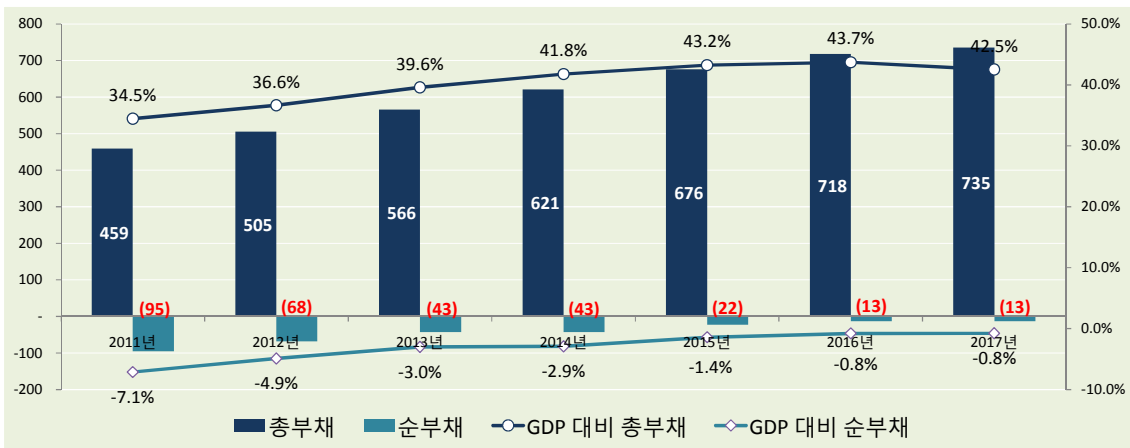
한편, D2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는 음(-)의 값으로 일반정부의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보유한 금융자산이 매우 커서 발생하는 현상임

\* 순부채(Net Debt Liabilities)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순부채 규모가 음(-)의 값이라는 것은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부채상환이 충분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추세를 보면 2011회계연도 △95조원에서 2017회계연도 △13조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부채상환과 관련한 주의를 요구함

<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GDP대비%)



\* 순부채는 기획재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시범 작성한 금액임

② 국제동향

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

(단위: GDP대비%)



(출처: OECD, Stat)

※ 라트비아는 GDP 대비 수치가 1% 미만으로 그래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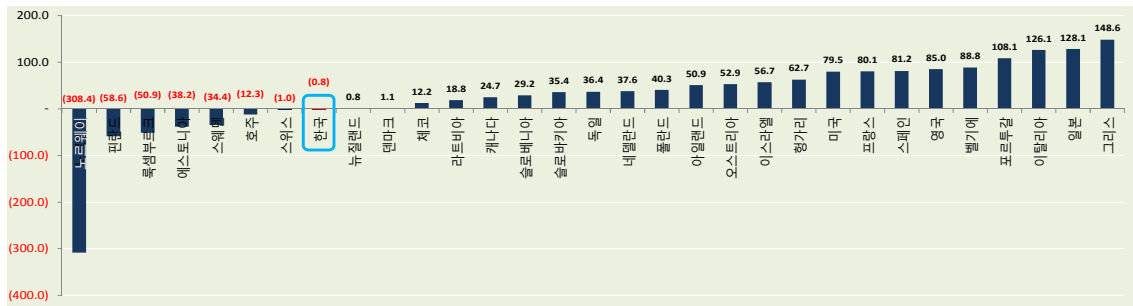
순부채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노르웨이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이 그 뒤를 이음. 노르웨이의 경우 원유판매 이익금을 국부펀드로 운영함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매우 큰 값을 기록하고 있음

반면에 순부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으로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은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 순부채는 GDP 대비 △0.8%로 공시국가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순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정부 순부채 금액의 국제 비교\* >

(단위: GDP대비%)



(출처: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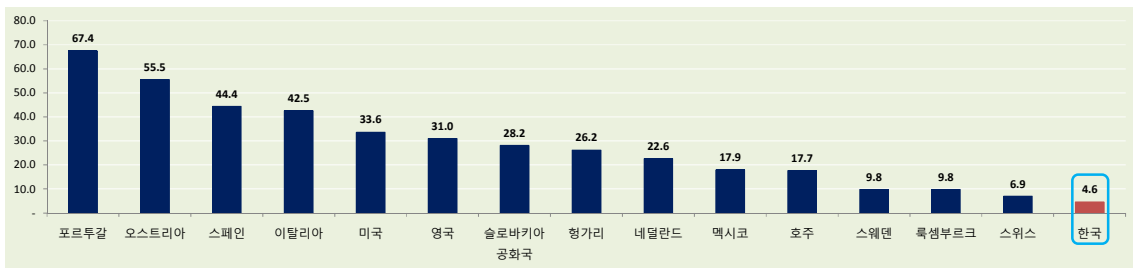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PSDS 기준의 순부채이며(주식및기타지분, 파생상품 제외), 여타 국가는 공시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GFS 기준의 순부채(주식및기타지분, 파생상품 포함) 금액 활용

한편, 부채유형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D2를 국내채권자와 해외채권자로 구분해보면, 포르투갈의 해외채권자 규모가 GDP 대비 6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한국 D2의 해외채권자 규모는 GDP 대비 4.6%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임

☞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이 남유럽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해외채권자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해외채권자 비중이 낮은 편임

< D2 해외채권자 규모의 국제 비교 >

(단위: GDP대비%)



(출처: OECD, Stat)

※ 라트비아는 GDP 대비 수치가 1% 미만으로 그래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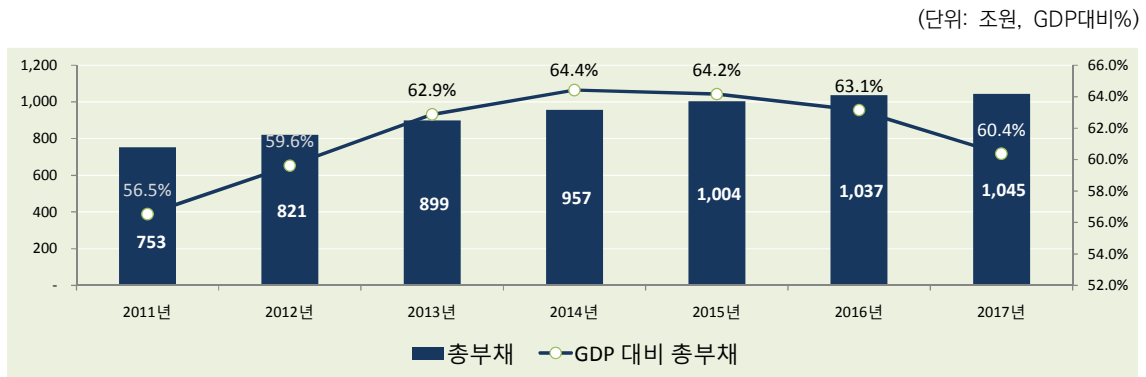
## 4 D3 분석

### 1 증감분석

2017회계연도의 D3는 1,045조원으로 전년대비 8조원(0.8%) 증가함. D3에서는 비금융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에 따른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감소 금액이(LH △4.7조원, 가스공사 △1.3조원 등) D2 증가분을 상쇄하여 D3의 증가폭은 일부 감소

D3의 GDP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2015회계연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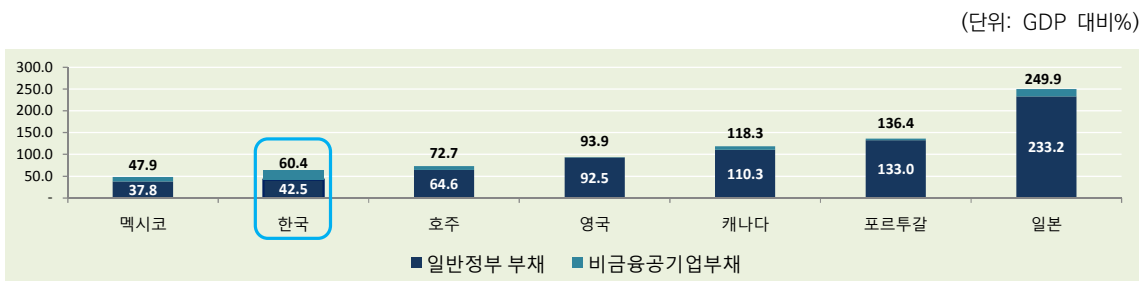
<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일반정부는 GDP 대비 42.5%, 비금융공기업은 GDP 대비 21.9%로 집계

### 2 국제동향

< D3의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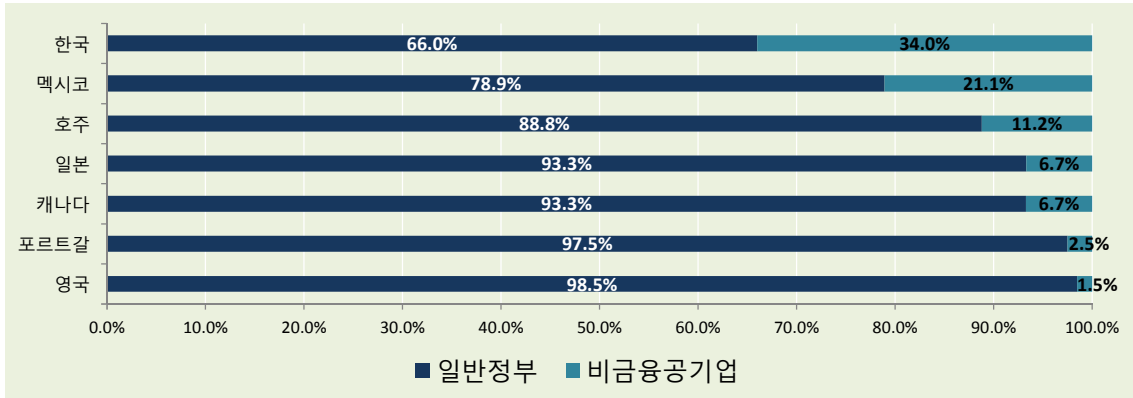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

※ 한국 이외 국가는 내부거래 제거 전 수치

D3 공시 국가 중 비금융공기업의 비중이 높아 관리 필요성이 높은 편이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부채절감 노력 등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회계연도 44.2%에서 2017회계연도 34.0%로 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D3 구성 비율의 국제비교 >

(단위: %)



(출처: OECD, Stat)

<한국 D3 구성 비율의 추세 분석 >

(단위: %)

